

84세에 등단 ‘늦깎이 시인’ 진도 출신 이영식 전 목포대 교수

## “인생 황혼기의 관조, 소년의 열정으로 풀어”



2013년 일본에서는 75세의 구로다 나쓰코(黒田夏子)라는 여성이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아쿠타 카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었다. 그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작품으로 증명했다.

칠순의 ‘문학소녀’ 팔순의 ‘문학소년’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다. 문학은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원숙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도 출신 이영식 전 목포대 교수가 최근 첫 시집 ‘갈 끗 없는 외출(한립)’을 폐냈다. 올해 우리 나이로 84세인 그는 2014년 ‘문학미디어’ 봄호에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뒤늦게 문단에 나왔다.

“감회가 새롭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20대로 돌아간 기분이다.”

그는 팔순에 접어든 2010년대에 들어서만 130여 편의 시를 쓸 만큼 문학적 열정에 심취해 있었다. 그동안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느라 문학을 뒷전에 밀어두었을 뿐, 내면엔 늘 시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원래 노(老) 시인의 문단 이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목포지역에서 발행되는

‘갈매기’ 등에 작품을 선보이는 등 문장으로서의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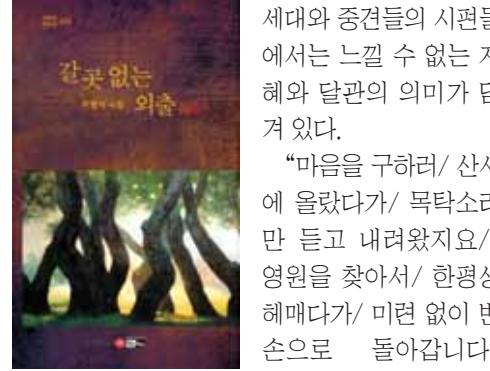
“목포중학교에 다닐 때 이웃에 살던 소설가 박화성(1903~1988년) 선생을 알게 됐다. 선생은 글 쓰기 지도뿐 아니라 문학의 길을 가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문학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 서울대 문리대를 거쳐 미국 남미시시피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 워리엄캐리대학교(68~86년) 교수를 거쳐 목포대학교(86~97년) 교수로 재직했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 목포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내 가슴 속에 마그마가 끓고 있었던 것을 물었다”며 “한 때의 바람기로 치부할 수 없는 순수한 시사임입을 절감했다”고 한다.

시집을 엮어내기까지는 2009년 소청 조희관(1905~1956)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최재환 시인과 동갑내기 아내 임성순씨의 권유가 큰 힘이 됐다. 화가로 활동 중인 아내는 표지 그림까지 직접 그림 만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

시집에는 창작시 111편, 습작기에 발표한 11편 등 모두 134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대체로 청장년



세대와 중견들의 시편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혜와 달관의 의미가 담겨 있다.

“마음을 구하려/ 산사에 올랐다가/ 목탁소리만 듣고 내려왔지요// 영원을 찾아서/ 한평생 헤매다/ 미련 없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 중)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인생의 황혼에 이룬 시인의 ‘빈손’은 그 울림이 간단치 않다.

시집에는 영어로 쓴 시 12편도 수록돼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증손주와 친지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란다.

해설을 쓴 평론가 이명재(중앙대 명예교수)씨는 “팔순 시인은 중앙의 어느 협연 중견 시인 못지 않게 알인이 영근 작품의 질량을 지녀 돋보인다”며 “남도적 서정에 깊은 사랑까지 달고된 인생 관조의 풍모가 더욱 우러러 보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기자kskypark@kwangju.co.kr

### 전남지방우청 청 문성계 신임 청장 취임



전남지방우청 청장은 24일 우정청 대회의실에서 문성계(54) 신임 청장 취임식을 열었다. 문신임청장은 “직원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사회 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하는 우정청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술고시(22회)를 통해 지난 1986년 공직에 입문한 문 청장은 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운영과장, 우정사업본부 정보화정책팀장, 전북지방우청청장 등을 거쳤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이종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호남대 명사특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이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호남대학교에서 명사특강을 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호남대 경찰학과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선거발전 과정과 6·4지방선거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시대가 빨라질 때, 신문은 깊어집니다’

#### 한국신문협회 ‘신문의 날’ 표어 선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제58회 신문의 날 표어’로 ‘시대가 빨라질 때, 신문은 깊어집니다’를 대상으로 25일 선정했다.

신문협회측은 김수민(성균관대 4년)씨의 표어가 ‘빠름’만 강조하는 모바일 시대에도 신문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우수상에는 유한동(인천대 4년)씨와 경북 경주시 김와선(여·64)씨가 각각 제출한 ‘최고의 스페셜, 신문 읽는 습관입니다’, ‘신문 읽는 엄마 아빠, 독서하는 우리 아이’가 선정됐다.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 상금 5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양세열기자 hot@

### 무등산풍경소리, 교보환경대상 생명문화 대상



사단법인 무등산풍경소리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종효)이 수여하는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생명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2년 7월 설립된 무등산풍경소리는 시민음악회를 열어 생명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종교인들이 무등산 난개발을 막는 것에 시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작된 무등산풍경소리는 중심사 주차장에 아스콘을 걷어내고 200여명 흙마당 작은 무대로 시작했다. 그동안 안치환, 한동준, 이상운 등이 음악인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118번째 음악회를 열었다.

무등산풍경소리 설립 당시부터 참여해 현재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최명진(47·사진) 목사는 “무등산이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탠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4월 22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양세열기자 hot@

### 동방신기, 섬진강 기차마을 10주년 팬미팅



한류스타 동방신기가 지난 24일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팬미팅을 가졌다. 이날 동방신기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200명의 팬들과 2시간 동안 기차에서 팬 미팅을 열고, 레일바이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방신기에게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팬들과 함께한 오늘이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 전남대 치과병원, 고려인 어린이집 무료 김진



전남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김재형)은 최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어린이집 원생들을 초청해 무료 구강검진 및 치아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평소 고려인 마을 주민들의 힘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소아치과 김선미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여수백병원 ‘어깨관절 질환과 치료’ 설명 행사



여수백병원(병원장 백창희)은 지난 24일 ‘어깨관절의 날’을 맞아 어깨관절 질환과 치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여수백병원 1층 로비에서 입원환자들과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어깨관절 힘줄파열 수술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어깨관절의 특성과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김승(전광주서부교육장)·강성숙 씨 장남 동국·삼성물산군 박순철·이민자씨 장녀지후양=30일(일) 낮 12시 광주광주라붐웨딩홀 3층 더클래스 흘.

▲조영록(곤지암고 교사)·최순노(곤지암초 교사)씨 장남 원혁(미국 캔스스대학교 연구원)군 장형래(TBN한국교통방송 전 편성제작국장)·오정숙씨 장녀 기원(한국방송통신신전과진흥원)양=29일(토) 오후 5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웨딩홀 02-880-0300.

### 증진회

▲함평 이씨 광주증진회 정기총회=30일(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상무중학교 010-4951-4986.

▲경주 배씨 나주 증진회=30일(일) 오전 11시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태봉사 010-560-3507.

▲진주 강씨 광산구 증진회(회장 강

태수) 정기총회=29일(토)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시민연대 3층 사무실 062-944-2383.

▲전주이씨 대동종족원 광주·전남 지역부·복구분원 정기총회=29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 지역부·복구분원 회의실 3층 분원장 010-4626-1165.

▲고령 신씨 전남서부·광주총회 정기총회=29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2층 회의실 010-7322-4938.

▲진주 강씨 영암군 증회(회장 강 대천) 정기총회=27일(목) 오전 11시 영암읍 우정회관 010-4816-3060.

### 동창동문회

▲광주교육대 부설초 39회 동창회=29일(토) 오후 6시 광주 동구 계림동 금수장 관광호텔 010-9473-299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법 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26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자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살펴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봄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법 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 및 법률 검찰청 010-633-5747.

▲운암골 족구회 회원=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 전일천.

▲광주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모집

▲팔콘민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 모집(원장 1: 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팝신합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증정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0-601-6989.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김인기(부회장·불사조) 011-633-5747.

▲운암골 족구회 회원=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 전일천.

▲광주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232-9192.

### 부음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 062-266-6321~2.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 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경) 010-8216-8585.